

여성 성기능 장애(Q&A)

유 회 현 · 유회현 산부인과 원장

Q1 남자도 선천적으로 성욕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 3년째인데 아내는 성적으로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웬일인지 아내와는 성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아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혼도 거론합니다. 아내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원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 일주일에 1회 정도로, 요일까지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마저도 지킬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날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 전혀 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늦게 들어가거나 하며 피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더 화를 내면서 자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저는 아내를 싫어하지 않을 뿐더러 이혼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적으로 흥미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큰 고민입니다.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밖에서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할 때에는 아주 정상이고 성욕도 생깁니다.

A. 아내 이외의 다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생각하면 신체적 성기능 장애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직 심리적인 면과 부인의 신체적인 결합 중 하나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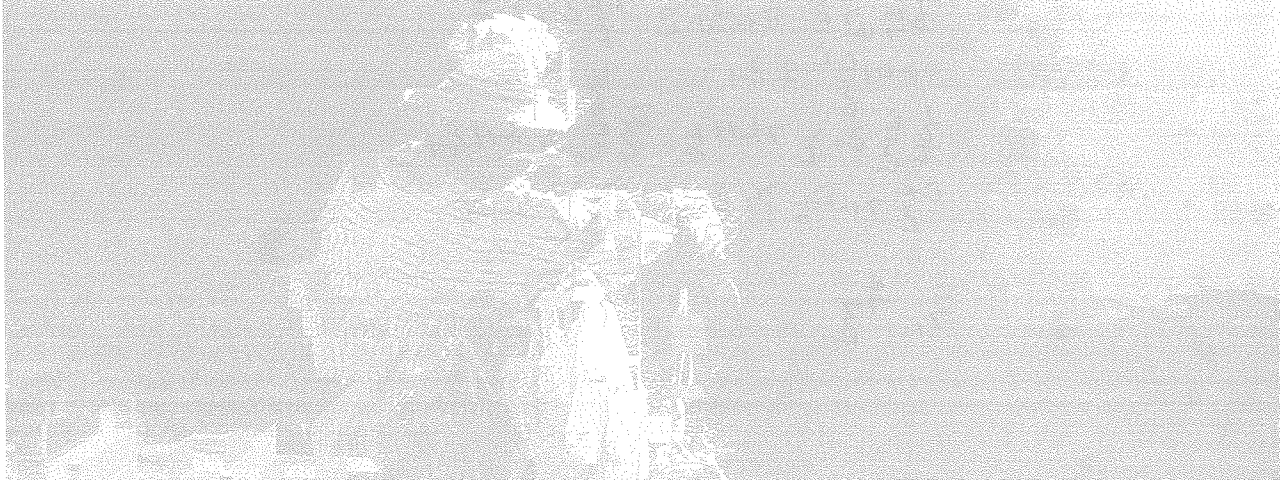
남녀 모두에게 스트레스 및 부담감은 성생활의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때에 따라서 성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마음에 두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악순환이 계속되고 니중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남자의 성능력 저하의 원인에는 피로·스트레스·완벽한 sex에 대한 지나친 기대·자신의 성기에 대한 열등감·아내와 다른 여성들에 대한 비교 등 수없이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진행된 성적 갈등이 있는 경우엔 그 원인 규명과 아울러 어떤 극적인 전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원인 규명에 전문의의 조언을 빨리 구하시는 길이 현명한 일입니다.

Q2 결혼한지 2년 된 남성입니다. 둘이 직장에 다니고 있어 아직 아이계획은 1년 뒤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혼 전 어머니가 어디에서 궁합을 보고 오셔서 '너희들은 속 궁합이 맞지 않는단다'면서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머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내와 성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막 해서부터 지금까지 성적만족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질이 많이 큰 것 같고 조이는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조여보라고 주문도 해 봤지만 전혀 그런 느낌도 없고 우선 사이



즈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기 확대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성도 질의 크기 조절이 되는지요. 또 수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속 공합이란 부부의 성생활의 양태를 일컫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속 공합이 맞고 안 맞는 비단 신체적 성기의 크기가 문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성의 질은 이완과 수축의 능력이 큰 장기이므로 분만 등 특별한 원인이 없는 한 해부학적 크기가 문제가 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 수축을 일으키는 원인에 문제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성적 자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엔 혈겁고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손상을 받지 않았는데 선천적으로 질이 넓고 수축하는 근육의 발달이 미약한 여성이 있고 남성의 성기가 극히 작은 경우에는 수술적 요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부의 취향에 따라 꼭 조인 옷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헐거운 옷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듯이 성관계 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질이 좁고 수축력이 강한 여성이 남편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질의 크기를 작게 하는 방법에는 수술적 방법밖엔 없으며, 수축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운동요법(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축력 향상기구도 일종의 운동기구임)과 수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느냐는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Q3 아내는 부부관계 시 애무를 좋아합니다. 보통은 20분 정도 애무를 하고 관계를 하는데 너무 일방적입니다. 여기해라, 저기해라 계속 잔소리를 해서 몹시 기분이 상해 sex할 기분이 사라집니다. 어쩌다 발기가 잘 되더라도 애무시간이 너무 길다보니 지쳐서 페니스에 힘이 빠져 sex를 하지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몹시 화를 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저는 부부생활에 아주 흥미를 잃을 것만 같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성생활은 어떤 면에선 동물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성생활은 예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 우리 선조들의 사고와는 사뭇 달리 자손생산의 수단이 아닌 사랑의 나눔과 사랑의 창조행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부부의 경우엔 특히 성생활이 부부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자라온 환경과 성격 등이 성에 대한 인식 및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을 땐 먼저 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관심,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성지식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언제부터인지 성관계 시에 아내의 질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방귀소리 같은 소리가 납니다. 저도 기분이 상하지만 아내도 이런 소리가 나면 기분이 상하는지 중간에 포기해 버립니다.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칠 수 있는지요?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니다.

A. 질문하신 내용은 분만 후 산도의 손상에서 기인된 현상이라 이해됩니다. 성관계 시 바람 빠지는 소리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성기 결합의 이탈이 자주 일어나고 서로가 험겁게 느껴지는 상황이면서 소리가 자주 나면 질 손상을 의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수술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요즘엔 입원도 필요치 않고 통증 없이 수술이 가능하며 수술 다음날부터 일상생활엔 별 지장이 없습니다. 77

